

상호理解와 協調풍토로 變化물결에 능동적 對處

회장 韓 泰 熙



존경하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제2회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임 김지주 회장의 뒤를 이어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산망 관련 제반사업의 중추기구인 정보통신진흥협회장으로서 업계의 권익신장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고도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을 이룩해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창립초기의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신 전임 회장님, 협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와 관련단체, 그리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협회가 창립된지 만 2년이 되가는 올해는 정보통신부문의 변혁기로 전기통신관계법령의 전면개편과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전산망표준의 본격 추진, 통신시장의 대외개방 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초부터 우리에게 기본서비스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조기개방

을 요구해오다가 급기야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내의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전산망 관련업체의 중심적 기관으로 전산망표준화, 정보통신산업센서스 등 각종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전산망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간다면 재편되는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단체, 그리고 공중통신사업자의 폭넓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산, 학, 연, 관이 상호 이해와 협조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갑시다.

여러분의 앞날에 전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